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 및 비용 분석

김진경¹⁾

요약

본 연구는 2009년도 전국보육실태 조사결과를 근거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방과 후 보육 현황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자료는 전국을 대상으로 표본 추출한 250개 표본조사구 15,000가구 중에서 영유아가 있는 2,459가구 중 초등학교 저학년(1, 2, 3학년) 아동이 있는 경우, 1775명의 저학년 아동 개별조사 자료결과였다. 첫째, 가구 내 가구원수가 많은 경우 방과 후 프로그램을 미이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용하는 시간제 특기교육 학원 수, 이용비용이 모두 적게 나타났다. 반면, 아동수가 적으면 예체능 지도 및 교과목 과외 지도, 학습지 지도 비용이 높았다. 둘째, 아동의 연령과 출생순위가 유의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출생순위가 이룰수록 방과 후 학원이용이 많았으며 이용하는 시간제 프로그램 수, 비용이 모두 높았다. 셋째, 가구총소득이 높을수록, 가구소득 대비 총비용비율이 낮을수록, 주택이 자가일수록 학원을 이용하는 경향이 높았는데, 이는 고소득층 가구가 학원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넷째,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방과 후 학원을 이용하거나 더 많은 수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지불하는 이용비용도 높았던 반면,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학교나 학원을 이용하지 않는 미이용률이 높았다. 이 연구에서 가구내 아동수, 출생순위, 연령, 가구소득, 어머니의 학력수준 등 가구별 특성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방과 후 프로그램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제어 : 방과 후 프로그램, 시간제 기관, 특기교육 학원, 개별·그룹교육지도, 가구 총소득

1)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전임강사

I. 문제제기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취업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자녀보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날로 확대되고 있다. 성인의 보호 없이 지내는 학령기 아동이 각종 사고와 위협에 노출되고,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오히려 방과후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들이 증가하면서 초등학교생의 방과후 보육에 대한 정책은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취업여성 자녀 중 35~40%가 방과 후에 성인의 보호 없이 3~7시간 가량을 혼자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박윤주, 2003),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76.5%가 학원 등의 사교육기관에서 방과 후 시간을 보내고 있다(류방란·최상근, 2004). 일명 ‘열쇠아동(latchkey child)’이라 불리우며, 학교에서 부모보다 일찍 돌아온 아동은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와 밥이나 간식을 챙겨먹고 직장에서 부모가 돌아오기 전까지 집에 있거나, 학원을 다니면서 자기보호를 스스로 해야 한다.

정부는 사교육비를 차단하고 방과후 보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맞벌이 부부의 증가, 한부모 가족 등 가족형태의 변화, 근로 빈곤층의 증가 등으로 방치되는 학생들을 방과후·방학 중 안전하게 보호, 지도하여 바람직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 아동 및 청소년 문제를 예방한다는 취지하에 실시되었다. 그러나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의 문제점이 몇 가지 거론되었다. 예산 부족으로 인건비가 부족하여 별도의 전담교사를 채용하지 못하여 학교 교사가 시간을 나누어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휴업일이나 방학 중에 운영을 하기 어렵다. 또한, 프로그램의 전문성 부족으로 보육시간 중 별도의 교육을 받기 위하여 아동이 외부로 다녀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 중 학원을 다녀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방과 후의 시간을 계속 학교에 머무르는 것은 아동에게 계속 긴장감을 주며 학교에 대한 싫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부적합하다는 것이다(서영숙·박진옥·서혜전, 2009).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 특히 가정과 같은 쾌적하고 안락한 교육적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절치 못하다는 전문가적 견해가 대부분이다.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보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는 크나(공선영·박재규·윤연정, 2006; 서문희 외, 2009; 여성부, 2005; 정익중, 2009),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부족한 현실이다.

학교에서 이뤄지는 방과 후 보육이나 특기적성 프로그램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와 신뢰도가 높지 않으며, 이에 대한 혜택을 받는 수혜자도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많은

아동들이 방과 후에 학원이나 개인, 그룹 과외지도를 받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김경식, 2003). 초등학교의 과외학습의 이유가 학교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실제로 과외학습을 한 후 성적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는 대답이 많았다(신중배, 2000). 과외학습의 대중화와 함께 학원수강,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을 중심으로 학습지와 방문지도를 묶는 저렴한 학습지 과외, 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팩스를 이용한 과외학습 등 다양한 형태의 사교육이 등장하였다.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과열 과외의 해소와 그에 따른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은 오히려 공교육을 불신하고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다.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학교가 적절하게 충족시켜주지 못한 반면, 과외학습 시장이 먼저 적응함에 따라 사교육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학교교육이 가진 한계성을 보완하며 보다 많은 자율성과 탄력성을 갖고 학습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과외학습의 성행하고 있는 추세이다. 과외학습이 학교교육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학습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개별적인 잠재 능력을 계발시켜주는 면에서 기여하는 측면도 있지만, 지나친 과외학습비와 학생들의 과중한 학습 부담은 학교교육의 정상적인 교육활동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늘어나는 과외학습으로 인하여 학부모는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갖게 되었으며, 학생들의 경우 초등학교생의 39.5%가 ‘과외를 받지 않으면 친구에 비해 성적이 떨어질 것’이라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배지연, 2004), 심리적인 불안감이나 압박감을 경험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또한, 초등학교생의 경우, 과외학습의 시작은 학생 자신의 선택보다는 학부모들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학생들의 능력은 고려되지 않은 채 이뤄지고 있어 이로 인해 학생들은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과도한 과외학습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을 위해 뛰어 놀아야 할 아동들에게 자칫 균형 잡힌 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김정원·이정아·이인경, 2009; 박은영, 2005). 또한, 과외 학습비 부담 능력에 따른 사회 계층 간 위화감이 조성되었으며, 부모의 경제력을 통하여 경쟁 우위가 확보되는 귀속주의 풍토가 강화되었다(김경근, 2009). 사교육비 지출규모는 가정의 경제력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아동이 받는 교육의 질적인 차이에 반영되어 극심한 교육 불평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학원이나 개인·그룹 과외 등 사교육을 이용하는 경향이 팽배한 상황이다. 취업여성의 증가로 초등학교 아동의 방과 후 보육에 대한 문제는 중요한 현안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 제안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이 아직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방과후 보육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전국적인 규모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9년도 전국보육실태 조사결과를 근거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방과 후 보육 현황에 대해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 및 가구 변인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방과 후 보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보육공간을 학교, 학원, 집(미이용)으로 구분하여 방과후 학교 이용 여부, 방과후 학원 이용 여부, 기관 이용 여부에 따른 분석하였다. 둘째, 시간제 학원이나 개인·그룹 과외 등 사교육(프로그램 수, 비용, 이용시간)을 선택해서 이용하는 경우, 아동 및 가구 변인 중 어떤 요인이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 다각도로 모색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실시된 '2009년도 전국 보육실태 조사 가구조사' 자료의 일부이다. 2009년도 전국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표본 추출한 250개 표본조사구 15,000가구 중에서 영유아가 있는 2,459가구 중 초등학교 저학년(1, 2, 3학년) 아동이 있는 경우만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1,775명의 저학년 아동 개별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2. 연구변수 및 분석방법

먼저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서비스 이용 실태 분석에 사용된 종속변수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방과후 학교 이용 여부, 방과후 학원 이용 여부, 기관 미이용 여부이다. 방과후 학교에서 이뤄지는 보육,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학교라는 공간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방과 후 학교이용으로, 일반예체능 및 보습학원, 학원의 방과 후 프로그램은 학원이라는 별도의 공간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방과 후 학원이용으로, 방과 후 어떤 곳도 다니지 않는 경우는 미이용으로 각각 더미화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대한 독립변수로는 아동, 가구 관련 변수들로 총 22개의 독립변수를 선정하였다. 가구 특성으로는 가구원수, 아동 수, 가족유형, 조부모 동거(친조부, 친조모, 외조부, 외조모), 부·모의 1주일 당 근로시간, 거주지, 주택, 가구총소득, 월평균 지출액,

가구소득 대비 총비용 비율, 모 취업, 모 학력, 모 직종, 부 학력, 부 직종 변수를 사용하였고, 아동 특성으로는 아동연령, 아동성별, 출생순위를 사용하였다. 가족유형은 부부와 가족이 사는 세대를 준거로, 거주지는 도시를 준거로, 주택은 자가를 준거로, 모 취업은 취업을 준거로, 부·모 직종은 전문직을 준거로, 부·모학력은 고졸이하를 준거로 더미화하였다.

두 번째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시간제 학원 이용에 관해 분석하기 위해서, 특기교육 학원, 보습학원 등 시간제 학원 이용 수, 이용시간, 이용비용을 각각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세 번째로, 개인·그룹 과외지도, 학습지 이용에 대한 분석을 위해, 예체능 지도과 교과목 지도 프로그램 이용 수, 이용시간 및 비용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방과 후 서비스 이용 실태

가. 방과 후 학교 이용 관련요인

22개의 독립변수 중 초등학교 저학년의 방과 후 학교 이용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거주지, 가구총소득, 부 학력, 부 직종, 아동연령이며, 부 직종은 정적방향으로, 거주지, 가구총소득, 부 학력, 아동연령은 부적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즉, 아버지의 직종이 전문직일수록, 거주지가 도시가 아닌 경우에, 가구총소득이 낮을수록, 아버지의 학력이 낮으며, 아동의 연령이 낮을수록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이 방과 후 학교이용률이 높았다(표 1 참조).

〈표 1〉 방과 후 학교, 학원 이용 및 미이용에 대한 관련변수의 영향

구분	초등학교 특기적성 및 방과 후 보육		학원 등(일반 예체능 및 보습, 방과 후 보육)		방과 후 프로그램 미이용	
	B(SE)	Exp(B)	B(SE)	Exp(B)	B(SE)	Exp(B)
상수	.804(2.011)	2.235	-.289(1.644)	.749	1.112(3.767)	3.040
가구특성						
가구원 수	.004(.167)	1.004	-.172(.139)	.842	-.131(.233)	.877
아동 수	.082(.153)	1.086	-.194(.127)	.824	.542(.212)*	1.720

(표 1 계속)

구분	초등학교 특기적성 및 방과 후 보육		학원 등(일반 예체능 및 보습, 방과 후 보육)		방과 후 프로그램 미이용	
	B(SE)	Exp(B)	B(SE)	Exp(B)	B(SE)	Exp(B)
가족유형(준거=부모+자녀)	-.087(.456)	.917	-.092(.402)	.912	.001(.603)	1.001
조부모 동거						
친조부 동거	-.303(.467)	.738	.597(.413)	1.817	.598(.638)	1.818
친조모 동거	.369(.517)	1.447	-.304(.450)	.738	-.198(.687)	.820
외조부 동거	.035(.762)	1.036	.396(.691)	1.486	-.546(1.348)	.579
외조모 동거	.558(.642)	1.747	-.647(.571)	.524	.567(.915)	1.763
부의 1주일 당 근로시간	.000(.000)	1.000	-.001(.000) ⁺	.999	.000(.001)	1.000
모의 1주일 당 근로시간	-.001(.002)	.999	.000(.002)	1.000	-.001(.004)	.999
거주지(준거=도시)	-.305(.180) ⁺	.737	-.112(.158)	.894	.244(.270)	1.277
주택(준거=자가)	.038(.152)	1.038	.282(.122) ⁺	1.326	-.508(.208) ⁺	.602
가구 총소득	-.114(.043) ⁺⁺	.892	.163(.038) ⁺⁺⁺	1.178	-.118(.074)	.889
월평균 지출액	.000(.001)	1.000	.001(.001)	.196	-.002(.002)	.998
가구소득 대비 총비용 비율	.000(.000)	1.000	-.004(.001) ⁺⁺⁺	.996	.004(.000) ⁺⁺⁺	1.004
모 취업(준거=취업)	-.230(1.674)	.795	-.260(1.352)	.847	-1.042(3.312)	.353
모 학력(준거=고졸이하)	.033(.191)	1.033	.352(.153) ⁺	1.422	-.731(.264) ⁺⁺	.481
모 직종(준거=전문직)	-.309(.292)	.734	.091(.236)	1.096	-.084(.462)	.920
부 학력(준거=고졸이하)	-.397(.176) ⁺	.672	.053(.135)	1.054	.362(.217) ⁺	1.436
부 직종(준거=전문직)	.354(.204) ⁺	1.424	-.466(.161) ⁺⁺	.627	.206(.274)	1.229
아동특성						
아동 연령	-.238(.083) ⁺⁺	.788	.245(.067) ⁺⁺⁺	1.278	-.253(.114) ⁺	.777
성별	.164(.145)	1.178	.010(.118)	.931	-.631(.205) ⁺⁺	.532
출생 순위	.207(.136)	1.230	-.355(.111) ⁺⁺	.701	.413(.182) ⁺	1.511
-2 Log Likelihood	1317.896		1793.897		794.610	
χ^2 (df)	66.080(22) ⁺⁺⁺		301.573(22) ⁺⁺⁺		228.844(22) ⁺⁺⁺	
Nagelkerke R ²	0.067		0.226		0.276	

+p<.1, * p<.05, ** p<.01, *** p<.001

나. 방과 후 학원 이용 관련요인

방과 후 일반 예체능 및 보습학원 이용과 관련요인을 분석한 결과, 아버지의 1주일 당 근로시간, 주택, 가구총소득, 가구소득 대비 총비용 비율, 모 학력, 부 직종, 아동 연령, 아동 출생순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주택, 가구총소득, 모 학력, 아동 연령은 정적 방향으로, 부의 1주일 당 근로시간, 가구소득대비 총비용 비율, 부 직종, 출생순위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주택이 자가일 경우, 가구총소득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이 방과 후에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아버지의 근로시간이 적을수록, 가구소득 대비 총비용 비율이 낮을수록, 부직종이 전문직이 아닌 경우에, 출생순위가 이룰수록 초등학교 방과후 학원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방과 후 프로그램 미이용 관련요인

초등학교 저학년이 방과 후 학교나 학원, 어린이집, 복지기관 등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미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아동 수, 주택, 가구소득 대비 총비용 비율, 모 학력, 부 학력, 아동 연령, 아동 성별, 출생 순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수, 가구소득 대비 총비용 비율, 부 학력, 출생순위는 정적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 반면, 주택, 모 학력, 아동의 연령과 성별은 부적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즉, 아동 수가 많을수록, 가구소득 대비 총비용 비율이 높을수록, 출생순위가 낮을수록 미이용률이 높다. 또한 주택이 자가인 경우, 모 학력이 낮을수록, 아동의 연령이 낮을수록, 성별이 여자인 경우에 방과 후 학교나 학원, 기타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다(표 1 참조).

2.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시간제 기관 이용 관련요인

가. 시간제 기관 이용 관련변수

1) 특기교육 프로그램 이용 수 관련 요인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특기교육 학원 등 시간제 기관 이용 수에 대한 분석결과,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구총소득, 가구원수, 모 학력, 월평균지출액, 가구소득대비 총비용비율, 출생순위 6개 변수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가구총소득, 모 학력, 월평균지출액, 가구소득 대비 총비용 비율은 정적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는데, 가구총소득과 월평균지출액이 높고, 모 학력이 높고, 가구소득대비 총비용 비율이 높을수록 아동이 더 많은 수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구원수와 출생순위는 부적 방향으로 영향을 미쳐,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출생순위가 낮을수록 아동이 이용하는 프로그램 수는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독립변수의 설명력을 살펴보면, 총 6개의 변수가 추가되면 대략 12%의 설명력을 가졌다.

〈표 2〉 특기교육 프로그램 수에 대한 관련 변수의 영향

구분	B(SE)	Beta	ΔR^2	누적 R^2
상수	1.595(.154)***			
가구총소득	.081(.013)***	.200	.081	.081
가구원수	-.118(.033)***	-.100	.015	.096
모 학력	.165(.049)**	-.093	.009	.105
월평균지출액	.001(.000)**	.102	.006	.111
가구소득 대비 총비용 비율	.002(.001)**	.070	.003	.114
출생순위	-.108(.039)**	-.076	.005	.119

주: 사용한 독립변수 중 유의하지 않은 변수는 제외됨.

** $p < .01$, *** $p < .001$

2) 특기교육 프로그램 이용 시간 관련 요인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이 시간제 학원에서 특기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분석한 결과, 모 취업, 가구총소득, 친조부 동거, 가구소득 대비 총비용 비율의 4개 변수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모 취업, 가구총소득, 가구소득 대비 총비용비율은 아동의 특기교육 프로그램 이용 시간에 정적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는데,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에, 가구총소득이 높을수록, 가구소득 대비 총비용비율이 높을수록 아동은 많은 시간을 특기교육 학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친조부 동거는 부적 영향을 미쳤는데, 친조부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 아동은 특기교육 학원에 많은 시간을 보냈다.

〈표 3〉 특기교육 프로그램 이용 시간에 대한 관련변수의 영향

구분	B(SE)	Beta	ΔR^2	누적 R^2
상수	7.089(.385)***			
모 취업	1.449(.285)***	.137	.024	.024
가구총소득	.247(.058)***	.114	.010	.034
친조부 동거	-1.433(.671)**	-.056	.003	.037
가구소득 대비 총비용 비율	.008(.004)*	.052	.002	.039

주: 사용한 독립변수 중 유의하지 않은 변수는 제외됨.

* $p < .05$, ** $p < .01$, *** $p < .001$

3) 특기교육 프로그램 이용 비용 관련 요인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위해 지출하는 프로그램 이용 비용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구총소득, 아동 출생순위, 월평균지출액, 모 학력, 아동 연령, 가구소득 대비 총비용비율, 가구원수 7개의 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표 4〉 특기교육 프로그램 이용비용에 대한 관련변수의 영향

구분	B(SE)	Beta	ΔR ²	누적 R ²
상수	8.713(32.346)			
가구총소득	15.180(1.720)***	.279	.150	.150
아동 출생순위	-14.786(5.036)**	-.077	.012	.162
월평균지출액	.117(.026)***	.137	.009	.171
모 학력	23.103(6.325)***	.097	.007	.178
아동 연령	13.705(3.578)***	.091	.007	.185
가구소득대비 총비용비율	.291(.088)**	.079	.006	.191
가구원수	-12.757(4.179)**	-.080	.004	.195

주: 사용한 독립변수 중 유의하지 않은 변수는 제외됨.

** p<.01, *** p<.001

가구총소득, 월평균지출액, 모 학력, 아동연령, 가구소득대비 총비용비율은 특성 프로그램 학원 이용비용에 정적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가구총소득이 높을수록, 월평균지출액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소득 대비 총비용비율이 높을수록 특기교육 프로그램 이용비용은 높았다. 반면, 아동출생순위와 가구원수는 부적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는데,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출생순위가 이를수록 시간제 학원을 이용하며 지불하는 프로그램 이용비용이 높았다. 6개 변수들의 설명력은 20%정도였다.

3. 초등학교 저학년의 개별·그룹 교육지도 관련 요인

가. 예체능 지도 이용 관련요인

1) 예체능 지도 수 관련 요인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개별, 그룹교육지도 중 예체능 지도에 대한 분석을 위해, 예체능 지도 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았다. 아동연령이 유의하게 정적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아동연령이 높을수록, 아동이 받고 있는 예체능 지도 수는 많았다.

〈표 5〉 예체능 지도 수에 대한 관련 변수의 영향

구분	B(SE)	Beta	ΔR ²	누적 R ²
상수	.011(.575)			
아동 연령	.171(.078)*	.221	.039	.039

주: 사용한 독립변수 중 유의하지 않은 변수는 제외됨.

* p<.05

2) 예체능 지도 시간 관련 요인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이 받고 있는 예체능 지도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친조부 동거와 거주지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친조부 동거는 정적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는데, 친할아버지와 동거를 할수록 예체능 지도 시간이 길었다. 반면 거주지는 부적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는데, 거주지가 도시가 아닌 경우에 예체능 지도 시간이 더욱 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친조부 동거의 설명력은 3.5%였으며, 거주지가 추가되면 7%로 증가하였다.

〈표 6〉 예체능 지도 시간에 대한 관련 변수의 영향

구분	B(SE)	Beta	ΔR^2	누적 R^2
상수	230.576(45.961)***			
친조부 동거	104.426(47.411)*	.218	.034	.034
거주지	-101.746(46.970)*	-.215	.036	.070

주: 사용한 독립변수 중 유의하지 않은 변수는 제외됨.
* p<.05, *** p<.001

3) 예체능 지도 비용 관련 요인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이 예체능 지도를 받는데 들어가는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한 결과, 가구총소득, 가구소득대비 총비용비율, 아동 수, 아동연령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가구총소득, 가구소득대비 총비용비율, 아동연령은 정적 방향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는데, 가구총소득이 높을수록, 가구소득대비 총비용비율이 높을수록, 아동연령이 높을수록 예체능 지도 비용이 더 높았다. 반면, 아동수가 적을수록 예체능 지도 비용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체능 지도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설명력은 27%정도였다.

〈표 7〉 예체능 지도 비용에 대한 관련 변수의 영향

구분	B(SE)	Beta	ΔR^2	누적 R^2
상수	-195.406(93.882)*			
가구총소득	21.223(5.016)***	.394	.084	.084
가구소득대비 총비용비율	4.628(1.167)***	.389	.077	.161
아동 수	-54.601(18.462)**	-.278	.069	.230
아동 연령	24.186(11.038)*	.195	.030	.260

주: 사용한 독립변수 중 유의하지 않은 변수는 제외됨.
* p<.05, ** p<.01, *** p<.001

나. 교과목 과외지도 이용 관련요인

1) 교과목 과외지도 수 관련 요인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교과목 과외지도 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아동연령, 가구원수, 거주지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아동연령이 높을수록,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거주지가 도시가 아닌 경우에 교과목 과외지도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목 과외지도 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의 설명력으로는 아동연령이 4% 정도였으며, 가구원수가 추가되면 6%, 거주지가 추가되면 9%로 증가하였다.

〈표 8〉 교과목 과외지도 수에 대한 관련 변수의 영향

구분	B(SE)	Beta	ΔR^2	누적 R^2
상수	1.754(.937)			
아동연령	.203(.094)*	.187	.031	.031
가구원수	-.297(.115)*	-.229	.025	.056
거주지	-.610(.268)*	-.202	.032	.088

주: 사용한 독립변수 중 유의하지 않은 변수는 제외됨.

* p<.05

2) 교과목 과외지도 시간 관련 요인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교과목 과외지도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모 학력, 모 1주일 당 근로시간, 월평균 지출액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모 학력, 모 1주일 당 근로시간과 월평균 지출액은 모두 부적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즉,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어머니의 일주일 근로시간이 적을수록, 월평균 지출액이 낮을수록 교과목 과외지도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3변수의 설명력을 17%정도 나타냈다.

〈표 9〉 교과목 과외지도 시간에 대한 관련 변수의 영향

구분	B(SE)	Beta	ΔR^2	누적 R^2
상수	548.449(66.227)***			
모 학력	-81.263(37.590)*	-.192	.085	.085
모 1주일 당 근로시간	-.148(.047)**	-.269	.051	.136
월평균지출액	-.312(.143)*	-.189	.025	.161

주: 사용한 독립변수 중 유의하지 않은 변수는 제외됨.

* p<.05, ** p<.01, *** p<.001

3) 교과목 과외지도 비용 관련 요인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교과목 과외지도 비용과 관련된 요인으로 가구소득대비 총비용비율, 아동 수, 가구총소득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가구소득대비 총비용비율과 가구총소득은 정적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가구소득대비 총비용비율이 높을수록, 가구총소득이 높을수록 아동이 받는 교과목 과외지도 비용은 높았다. 반면 아동 수는 부적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는데, 가구 내에 아동 수가 적을수록 교과목 과외지도 비용이 많았다.

〈표 10〉 교과목 과외지도 비용에 대한 관련 변수의 영향

구분	B(SE)	Beta	△R ²	누적 R ²
상수	80.459(36.881)*			
가구소득대비 총비용비율	3.708(.766)***	.439	.071	.071
아동 수	-36.215(12.642)**	-.252	.056	.133
가구총소득	8.619(3.328)*	.225	.039	.172

주: 사용한 독립변수 중 유의하지 않은 변수는 제외됨.

* p<.05, ** p<.01, *** p<.001

다. 학습지 지도 이용 관련요인

1) 학습지 지도 수 관련 요인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이 받는 학습지 지도 수에 관련된 요인을 분석한 결과, 출생순위, 아동 수, 가구소득대비 총비용비율, 가구총소득, 모 학력, 가구원수 6개의 변인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가구소득대비 총비용비율, 가구총소득, 가구원수는 정적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는데, 가구소득대비 총비용비율이 높을수록, 가구총소득이 높을수록, 가구원수가 많을 수록 아동은 더 많은 수의 학습지 지도를 받았다. 출생순위, 아동 수, 모 학력은 부적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는데, 출생순위가 낮을수록, 아동수가 적을수록,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은 수의 학습지 지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학습지 지도 수에 대한 관련 변수의 영향

구분	B(SE)	Beta	△R ²	누적 R ²
상수	2.251(.235)***			
출생순위	-.206(.058)***	-.127	.007	.007

(표 11 계속)

구분	B(SE)	Beta	ΔR^2	누적 R^2
아동 수	-.319(.073)***	-.185	.007	.014
가구소득 대비 총비용 비율	.019(.004)***	.165	.010	.024
가구총소득	.056(.016)**	.127	.004	.028
모 학력	-.198(.072)**	-.100	.008	.036
가구원수	.109(.055)*	.083	.003	.039

주: 사용한 독립변수 중 유의하지 않은 변수는 제외됨.

* p<.05, ** p<.01, *** p<.001

2) 학습지 지도 시간 관련 요인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학습지 지도 시간 관련 요인으로 부의 1주일 당 근무시간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아버지의 1주일 근무시간이 길수록 자녀의 학습지 지도를 받는 시간은 길었다. 부의 1주일 당 근무시간은 3%정도 설명력을 보였다.

〈표 12〉 학습지 지도 시간에 대한 관련 변수의 영향

구분	B(SE)	Beta	ΔR^2	누적 R^2
상수	45.189(5.168)***			
부의 1주일 당 근무시간	.161(.031)***	.168	.028	.028

주: 사용한 독립변수 중 유의하지 않은 변수는 제외됨.

*** p<.001

3) 학습지 지도 비용 관련 요인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학습지 지도를 받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된 변인으로 가구총소득, 출생순위, 가구소득대비 총비용비율, 아동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가구총소득이 높을수록, 가구소득대비 총비용비율이 높을수록, 아동수가 적을수록, 출생순위가 이룰수록 학습지 지도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았다.

〈표 13〉 학습지 지도 비용에 대한 관련 변수의 영향

구분	B(SE)	Beta	ΔR^2	누적 R^2
상수	79.139(7.422)***			
가구총소득	3.749(.637)***	.196	.022	.022
출생순위	-9.840(2.282)***	-.139	.022	.044
가구소득 대비 총비용비율	.809(.185)***	.160	.009	.053
아동 수	-9.505(2.633)***	-.127	.012	.065

주: 사용한 독립변수 중 유의하지 않은 변수는 제외됨.

*** p<.001

IV. 결론 및 논의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 후 서비스 이용 실태에 대해 심층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 및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가구 내 가구원수가 많은 경우 방과 후 프로그램을 미이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용하는 시간제 특기교육 학원 수, 이용비용이 모두 적게 나타났다. 가구원수가 많은 경우에는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대체관계망이 존재하므로 방과 후 학교나 학원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아동수가 적으면 예체능 지도 및 교과목 과외 지도, 학습지 지도 비용이 높았다. 가구원수는 그만큼 경제적 부담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자녀수가 적을수록 고비용의 학원을 선택하거나, 예체능 등 개인, 그룹과외 지도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적은 수의 자녀에게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사교육을 실시하는 현 추세를 읽을 수 있다. 이는 사교육 부담으로 인해 자녀를 가능한 많이 출산하지 않으려는 저출산 풍토와 맥을 같이 하며, 다자녀 가구의 지원 필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아동의 연령과 출생순위가 유의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출생순위가 이질수록 방과 후 학원이용이 많았으며 이용하는 시간제 프로그램 수, 비용이 모두 높았다. 첫째 자녀일수록 부모의 기대와 투자가 가장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초등학교 저학년 중에서도 연령이 어릴수록 방과 후 학교를 이용하거나 미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연령이 점차 높아지면서 학원이나, 더 많은 수의 예체능 및 교과목 지도를 받았다.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의 전문성 측면에서 부모의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부모들이 학년이 높아지면서 공교육 외의 사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인식함을 보여준다.

셋째, 가구총소득이 높을수록, 가구소득 대비 총비용비율이 낮을수록, 주택이 자가일수록 학원을 이용하는 경향이 높았는데, 이는 고소득층 가구가 학원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반대로, 가구소득 대비 총비용 비율이 높을수록, 주택이 자가가 아닌 경우에 초등학교 저학년의 방과 후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미이용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즉, 저소득층 가구이며 자가를 소유하지 못한 경우에 방과 후 서비스 이용이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넷째,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방과 후 학원을 이용하거나 더 많은 수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지불하는 이용비용도 높았던 반면,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학교나 학원을 이용하지 않는 미이용률이 높았다. 이는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자녀

가 교육받는 시간제학원 프로그램의 수와 비용에 영향을 미치며, 결국 자녀가 받는 프로그램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반영한다. 한편,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에 시간제 학원 이용시간이 많았는데, 취업모 자녀의 경우 방과 후 시간 대부분을 학원에서 보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어머니의 1주일 당 근로시간이 적을수록 자녀의 교과목 과외지도 시간이 길었다. 이는 어머니의 취업여부, 또는 1주일 당 근로시간 등 직업조건에 따라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사교육의 범위나 방법이 달라짐을 시사한다. 한편, 아버지의 1주일 근무시간이 자녀의 학습지 지도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직장일로 바쁜 경우에, 자녀는 학습지를 통한 개인학습을 주로 많이 하거나, 학원에서 방과 후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시사한다.

고무적인 것은 소득수준과 가구원수 및 아동수가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 후 서비스 이용 실태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고소득이며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리고 어머니 학력이 높을수록, 출생순위가 이른 경우, 아동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부모들은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방과 후에 학원에 보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저소득인 경우, 자기 집을 소유하지 못한 경우,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방과 후 학교를 이용하거나 어떤 기관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업모 자녀인 경우, 가정의 경제수준과 상관없이 방과 후 자녀를 많은 시간 학원이나 개인, 그룹과의 지도를 통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감이 사교육을 조장하고, 경제적 형편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적은 자녀수를 출산해서 가장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추세를 읽을 수 있었다. 사교육 억제를 위해 정부는 초등학교 방과후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부모들의 만족도가 크지 않으며 이것이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 후 보육 문제에 대한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이 연구결과는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보육이 사각지대이며 사교육에 맹신하게끔 구조화된 현황을 보여주었으며, 이후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모색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기초자료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유아기에서 갓 벗어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에 대한 방과 후 보육문제는 발달상으로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학교가 발달에 적합한 보육환경을 구성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방과 후 보육을 책임지도록 지원해줄 정책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공선영·박재규·윤연정(2006). 경기도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 김경근(2009). 방과후 학교는 사회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가. **교육사회학연구**, 19(1), 1-27.
- 김경식(2003). 학교 학업성적에 대한 과외학습의 효과. **교육사회학연구**, 13(3), 21-41.
- 김정원·이정아·이인경(2009).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교실 아동의 행복감과 스트레스 및 놀이성간의 관계 연구. **아동학회지**, 30(3), 37-53.
- 류방란·최상근(2004).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방과후 학교 내 보육에 대한 기초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박윤주(2003). 맞벌이 부부 자녀의 방과후 아동지도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영(2005). 초등학교의 과외학습과 삶의 질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지연(2004). 초등학교의 학원과외학습 스트레스와 자기통제력 및 학교 적응과의 관계. 한양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문희·김은설·안재진·최진·최혜선·김유경·조애저(2009). 2009년 보육실태조사 보고-가구조사.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 서영숙·박진옥·서혜전(2009). 방과후 아동지도. **아동학회지**, 30(6), 281-295.
- 신종배(2000). 대구광역시 초등학교의 과외학습 실태 및 문제에 대한 연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여성부(2005). 「보육시설 실태조사 보고」
- 정익중(2009). 아동청소년 방과후 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고양: 공동체

· 논문접수 2011년 9월 30일 / 수정본 접수 11월 9일 / 게재 승인 12월 15일

· 교신저자: 김진경,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전임강사, 이메일 holyjin@nsu.ac.kr

Abstract

An Analysis of After-school Service and its Cost for the Lower Graders of Elementary Schools

Jin Kyung Kim

The current study is an in-depth analysis based on the surveys conducted in 2009 of after-school childcare of the lower graders of elementary schools. 2,459 households out of the 15,000 from the 250 sample districts have children and 1,775 lower graders(first, second and third graders) are under investigation. Our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in the following. First, we found that the size of families exert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cost of after-school education and care. Families with more members are more likely not to use after-school service. They also reported fewer talent programs and less cost. Smaller-sized families, in contrast, showed higher numbers in PE and art/music classes, tutoring and home-school materials. Second, the age of children and birth order turned out to be a significant factor. Children with a higher birth order take more private classes outside school and thus should account for higher cost of after-school service. Third, we also found, as expected, that families with higher income make more use of private educational institutes: those who report higher income and lower ratio of after-school cost against total income, and the homeowners pay higher cost for after-school service. Fourth, mothers' level of educational background also play a significant role. The mothers with higher academic level tended to utilize more after-school service in private educational institutes and, consequently, to pay higher cost for the programs.

Key words: after-school service, talent programs, tutoring, household income